

2012. 6. 18 제289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산업·경제

1. '런던 대학 국제파트너십'을 결성해 지역대학 부흥과 국제 대학도시로서 명성 제고 추진 (런던市)

(토막기사) 市 산하기업 인재 선발에 '헤드헌팅' 방식 도입 (베이징市)

건강·복지

(토막기사)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법안 추진 (뉴욕市)

(토막기사)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정부 차원의 노인 보호책 마련 (뉴욕市)

행정·재정

(토막기사) 비자 만료에 맞춰 외국인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베이징市)

도시환경

-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 (도쿄도)
-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환경정보 활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도쿄도)
(토막기사) 태양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토막기사) 상점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행위 금지 (뉴욕市)
(토막기사) 하이브리드 트럭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화물운송사업자 연비평가제도 시행 (도쿄도)

도시교통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도로포장 파손위치 자동인식시스템 운영 및 신
(新)포장재 기술개발 지원 (영국 브리스틀市 외)
(토막기사) 향후 10년 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 만들기 행동지침 발표
(미국 시카고市)

도시계획·주택

- 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 시행 (파리市)
-

산 업 · 경 제

1. '런던 대학 국제파트너십'을 결성해 지역대학 부흥과 국제 대학도시로서 명성 제고 추진 (런던市)

○ 런던市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공부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런던市와 시내 14개 대학 연합체가 함께 쇼케이스를 여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음. 런던은 이미 210여 개 국가에서 온 10만 5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대학도시임.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연합 조직을 유도하고 이들과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파트너십에 소속된 대학은 시티 대학, 런던대 소속 골드스미스, 퀸 메리와 킹스컬리지 런던, School of Oriental & African Studies, 브루넬 대학, 킹스턴 대학,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 왕립 예술대학, 왕립 수의대학, 웨스트민스터 대학 등 14개임.

· 市는 대학연합과 함께 홍보사업을 전개해 런던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기업의 인재 확보, 대학의 명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 효과를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 런던 내 14개 대학은 2012년 3월 런던 대학 국제파트너십(London Universities International Partnership)을 구성한 데 이어 여왕 즉위 기념 행사, 하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등 대형 행사에서 런던의 대학을 널리 홍보하는 행사를 주도할 계획임. 파트너십의 주요 활동내

용은 런던 소재 대학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는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방위 홍보를 펼치는 것임. 2012년에 시작될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첫째, 국가별로 런던 유학 장학생(London Study Ambassadors Award)을 선발해 런던에서 공부하는 동안 다양한 기업 및 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 런던에 소재한 유명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면담 또는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함. 우선 2012년에는 미국과 인도 출신 학생을 선발할 계획임.
 - 둘째, 여왕 즉위 기념식에 즈음해 ‘여기가 런던이다’(This is London)란 이름으로 홍보 쇼케이스를 진행함. 중국의 유명 블로거나 트위터 팔로어 수가 많은 유명 인사를 초청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진행되는 런던 교육현장을 소개함.
 - 셋째, 온라인 홍보사업으로 중국, 인도,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런던 유학에 대해 홍보할 계획임.
- 이밖에도 파트너십은 주요 유학생 출신 국가를 선정해 해당 언어로 제작된 유학 가이드북을 인터넷 홈페이지(www.londonandpartners.com/about-us/what-we-do/luip)를 통해 배포함.

(www.londonandpartners.com/media-centre/press-releases/2012/120314-london-the-best-city-in-the-world-in-which-to-study-says-new-london-university-partnership-as-it-launches-at-the-house-of-lords)

市 산하기업 인재 선발에 ‘헤드헌팅’ 방식 도입 (베이징市)

- 베이징 G&G 인적자원개발센터(北京雙高人才發展中心)와 베이징 해외학자센터(北京海外學人中心)는 러상국제인력자원베이징유한공사(樂相國際人力資源北京有限公司, 이하 ‘러상’)를 공동으로 설립함.
 - 그동안 베이징市 산하 공공기업들은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러상’은 市 산하기업의 운영방식을 이해하고 고급 인재를 발굴하는 헤드헌팅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립됨.
- 러상은 市 산하기업 9곳과 3년간 국내외 고급인재 헤드헌팅 업무를 담당한다는 전략적 협력 협의서에 서명함. 헤드헌팅은 서구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고급 인재 채용방식임. 러상은 특정 회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성과가 뛰어난 인재를 찾아 추천할 예정임.
 - 산하 공공기업은 베이징市 인프라투자유한공사, 베이징 주총그룹 유한책임공사, 베이징 수도개발홀딩스(그룹)유한공사, 베이징 중관춘개발그룹 주식유한공사, 베이징 가스그룹, 수도여행그룹 등 대기업임.
 - 러상은 인재 평가 및 선발을 위해 베이징 G&G 인적자원개발센터의 리더 시험평가 시스템 기술과 30여 개의 측정방법을 지원받고 있음. 또한 베이징 G&G 인적자원개발센터와 해외학자센터의 국내외 인재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국내외 인재를 추천함.

(北京日报, 2012. 6. 5)

건강 · 복지

비만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법안 추진 (뉴욕시)

- 뉴욕시는 2012년 5월 30일 시민의 비만을 낮추기 위해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가판대 등에서 대용량 탄산음료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델리카트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아이스티 등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가 포함되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16온스(약 473mL) 이상 되는 탄산음료, 가당(加糖) 음료의 판매 금지는 빠르면 201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과일주스·밀크셰이크와 같이 우유가 주성분인 음료, 술, 8온스(약 236mL)당 25칼로리 이하의 비타민 워터나 무가당 아이스 티는 금지목록에서 제외됨.
 -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자판기, 잡지 매장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는 탄산음료뿐 아니라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경우에도 16온스(약 473mL) 이하의 컵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신 음료 리필은 제한하지 않음.
- 블룸버그 시장은 이 법안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뉴욕에 사는 성인 중 50% 이상이 과체중 또는 고도비만이고 탄산음료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힘.
 - 이번 법안으로 레스토랑의 매상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업주들에게는 판매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음료값을 조금 인상하면 지역 경제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뉴욕시 음료협회 대변인은 시 보건국이 탄산음료를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비판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탄산음료가 아닌 비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음.

(www.nytimes.com/2012/05/31/nyregion/bloomberg-plans-a-ban-on-large-sugar-ed-drinks.html?_r=1&smid=tw-nytimes&seid=auto)

(www.nytimes.com/2012/05/31/nyregion/bloomberg-plans-a-ban-on-large-sugared-drinks.html?pagewanted=1&_r=2&seid=auto&smid=tw-nytimes)
 (www.theatlanticcities.com/arts-and-lifestyle/2012/06/which-city-might-try-ban-huge-sodas-next/2192/)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정부 차원의 노인 보호책 마련 (뉴욕市)

- 뉴욕市는 뉴욕州에서 2011년 수행한 ‘Elder Abuse Prevalence in New York State’ 연구 결과 뉴욕州에 거주하는 노인 1000명 중 76명이 노인학대 피해자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해 이에 대한 신고 및 노인보호, 노인학대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市는 방치되어 있는 노인, 독거노인까지 합치면 여러 형태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수가 연구보고서에 비해 24배까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노인학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감정적 학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모욕, 무시, 고립, 통제 등
 - 경제적 학대: 불법 혹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노인이 자신의 현금, 신용카드, 펀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물리적 학대: 구타, 성적 학대, 기타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 방치: 노인을 보살피는 모든 행위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음식, 의약품 포함)
- 위와 같은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市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Department of Aging의 노인 관련 범죄센터로 연락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위기관리, 안전계획, 응급상황 지원, 보호 서비스, 상담, 경찰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市는 의도적이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포함한다면 노인 20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안에 갇혀 있는 경우나

의자나 침대에 묶여 있는 경우, 정신이 맑지 않거나 우울한 경우, 갑작스러운 은행계좌 해지나 출금 등이 있는 경우 노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음.

- 보호자의 경우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노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대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갑작스러운 공격성을 보일 때, 보호자 자신이 노인을 대할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경우,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등이 있을 때는 이를 학대와 관련된 증상으로 판단하고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하고 있음.

(www.nyc.gov/html/dfta/html/services/crime-victims.shtml)

(www.nyc.gov/cgi-bin/exit.pl?url=http://www.lifespan-roch.org/documents/UndertheRadar051211.pdf)

행정 · 재정

비자 만료에 맞춰 외국인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베이징市)

- 베이징市는 2012년 5월 9일부터 비자, 거류증, 임시거주 등록 만료일에 맞춰 외국인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까지 900여 명의 외국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많은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학업, 거주,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비자, 거류증, 임시거주 등록 만료일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에 市는 문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만료일을 문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北京日报, 2012.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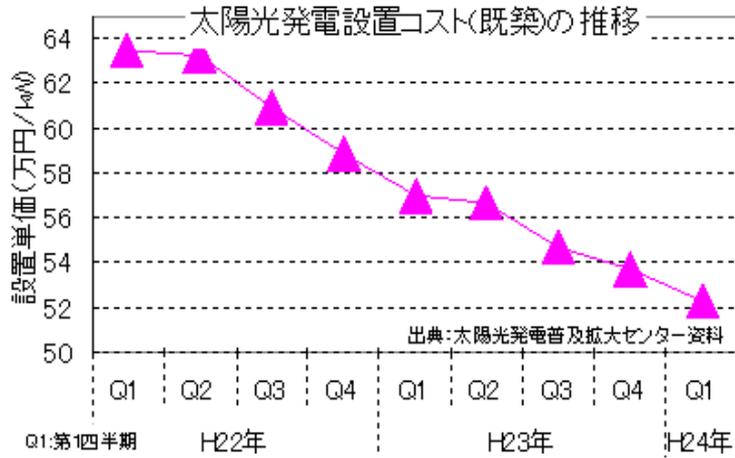
도 시 환 경

2.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 (도쿄都)

○ 일본에서 2007년 3월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도쿄都는 침체된 일본 태양광 발전 시장의 부활을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들로 ‘태양에너지 이용확대회의’를 구성해 2008년 2월 ① 설비비용 절감과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만들기, ②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③ 제품성능 향상과 계통 안정화에 관한 국가의 조치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이후 설치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에너지 기기 도입 보조 발표(2008년 8월), 정부보조 부활(2009년 11월), 잉여전력 매입제도(2009년 11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시행된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에너지 기기 도입 보조제도(2011년 6월) 등 일련의 대책을 시행해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

- 그 결과 도쿄都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2008년 월평균 약 420kW에서 2011년 월평균 약 4200kW로 약 10배 이상 증대됨.
- 태양광 발전 이용의 비약적인 확대에 따라 설치비용이 최근 2년간 20%가 감소하는 등 대폭 절감됨.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행되면 설치비용 절감과 함께 경제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예정임.



주: 세로축은 설치단가(만 엔/kWh), 가로축의 H22年是 2010년을 가리킴.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추이】

- 이와 관련해 도쿄都是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한 모든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보급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2012년 5월 수립함. 또한 都是 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4가지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5월 31일부터 1개월간 도민 및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都 시책에 반영할 예정임. 4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낮은 이율로 할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활용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의 전기요금을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함(초기투자 부담 경감).
 - 둘째, 지금까지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던 애프터케어(발전량 모니터링, 정기점검 등) 제도를 도입해 발전량을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함(애프터케어 확충).
 - 셋째, 신규수요 개척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정보확산 방안을 실시

함과 동시에 다양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정보 확산 및 상담창구 기능 확대).

- 넷째,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활용한 지붕 임대사업 등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 및 소개제도 시스템을 구축함(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진).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0.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1.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2.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5/22m5u403.htm)

3.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환경정보 활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도쿄都)

- 도쿄都는 2012년 새로이 수립된 ‘에너지 절약 및 관리방침’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쾌적성, 방재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건물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3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기존 중소 임대빌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벤치마크)를 만들고, 이 지표를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환경정보 활용 매뉴얼(시행판)’을 2012년 5월 28일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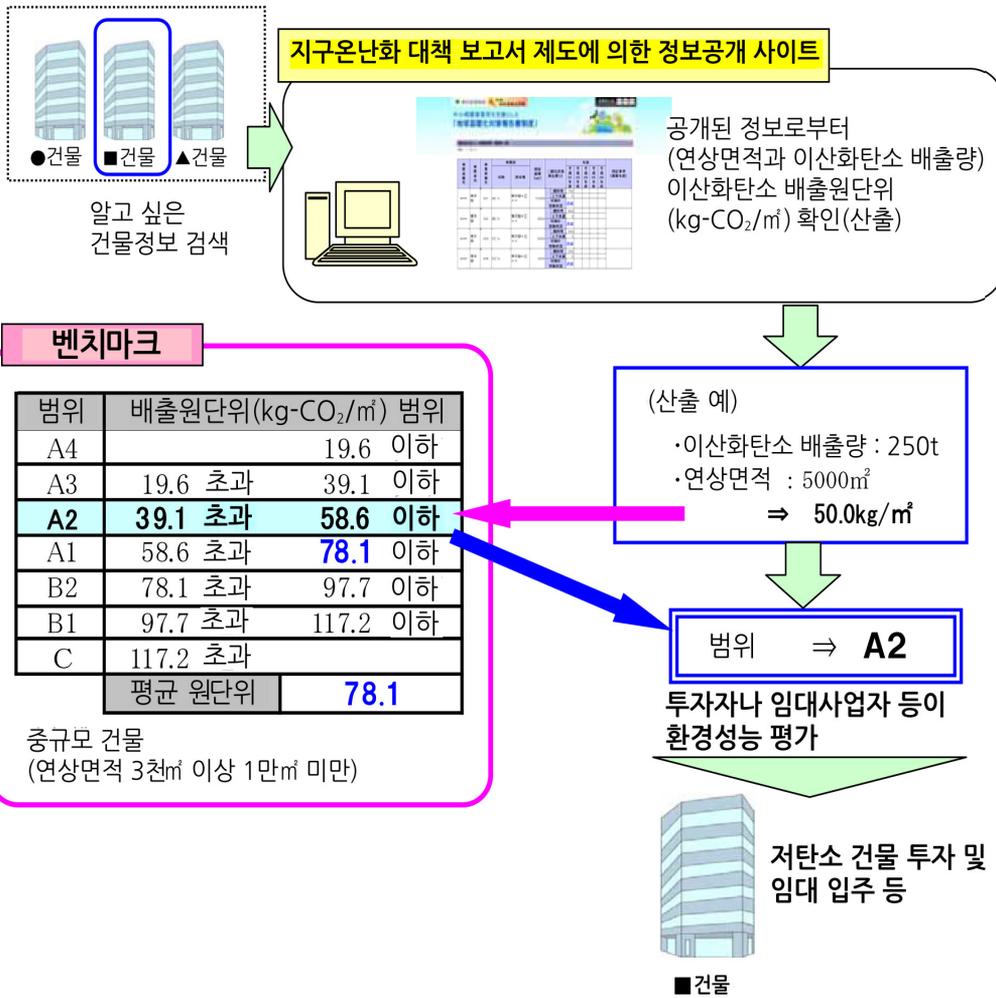
- 이 매뉴얼에서는 임대건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준(準) 대규모로 나누고 임대건물에 대해 연간 실제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건물의 연상면적(바닥면적)으로 나눈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의 평균(78.1kg-CO₂/m²)을 기준으로 평균과의 차이를 25% 단위로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 범위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표시를 참고하여 7단계로 설정함. ‘비율’ 항목은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를 제출한 임대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 건물의 비율을 나타냄.
- 아래 표는 중규모 임대건물에 대한 평가지표를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소규모 및 준(準) 대규모 임대건물의 경우 배출원단위 및 비율이 다름).

【중규모 임대건물(연면적 3000m² 이상 1만m² 미만)의 평가지표】

	범위	기준	배출원단위 범위 (kg-CO ₂ ÷ 제곱미터)	비율	
CO ₂ 배출량 많음	A4	0.25 이하	19.6 이하	0.70%	
	A3	0.25 초과 0.50 이하	19.6 초과 39.1 이하	6.10%	
	A2	0.50 초과 0.75 이하	39.1 초과 58.6 이하	26.20%	
	↓	A1	0.75 초과 1.00 이하	58.6 초과 78.1 이하	33.70%
		B2	1.00 초과 1.25 이하	78.1 초과 97.7 이하	16.10%
CO ₂ 배출량 적음	B1	1.25 초과 1.50 이하	97.7 초과 117.2 이하	7.30%	
	C	1.50 초과	117.2 초과	9.90%	
	평균 원단위		78.1	100%	



【이산화탄소 배출 지표에 의한 건물 평가 시스템】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s3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s301.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DATA/20m5s300.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DATA/20m5s301.pdf)

태양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미국 로스앤젤레스 市의회는 2012년 4월 태양광 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해 만든 '10메가와트 데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승인함. 10메가와트 태양광 에너지는 1만 가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같은 양임. 市 수도전력국은 로스앤젤레스가 1년 내내 햇빛이 들어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1인당 태양광 에너지 이용률이 다른 도시보다 낮고, 소비되는 에너지의 45%를 여전히 석탄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힘.
- 10메가와트 데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은 적은 시공비용으로 더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콘도, 주차장 건물, 창고 등과 같이 넓은 옥상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임. 지금까지는 소득이 높은 지역에 태양전지판을 많이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저소득층 지역에 주로 설치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임.



- 市 수도전력국은 2012년 후반기에 데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에 65메가와트를 추가하고 2016년까지는 75메가와트를 추가해 약 3만 4000여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150메가와트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임. 市는 '태양광 에너지 150메가와트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까지 4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5억 달러(약 5800억 원)의 경제 효과, 225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UCLA 러스킨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의 건물 옥상은 최대 5.5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는 50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같은 양임.

(<http://archpaper.com/news/articles.asp?id=6061>)

상점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행위 금지 (뉴욕시)

- 뉴욕시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점의 문을 열어 놓으면 불법으로 최초 적발 시 200달러(약 23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 400달러(약 4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고객 유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점의 문을 열어 두고 있어 심각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빌딩 냉·난방으로 인한 배출량이 30%를 차지하고, 상점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소비가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뉴욕시는 2008년 처음으로 상점의 외부 에어컨디셔닝에 대한 법률을 시행해 위반 상점에 벌금을 부과해왔음. 대부분의 상점이 환경 문제 및 벌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홍보 및 고객 유치 목적으로 에어컨을 켜 채 문을 열어두고 있음. 이에 'Gothamist'라는 인터넷 매체가 상점 주인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부분의 상점 운영자들은 문을 열어두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고객 방문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본사 차원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200달러(약 23만 원)라는 벌금이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조사를 시행한 Gothamist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벌금이나 권고만으로는 현재의 에너지 낭비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본적으로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에어컨을 켜둔 채 문을 열어둔 뉴욕시의 상점 모습】

(http://gothamist.com/2012/05/30/open_door_air_conditioning.php#photo-2)
(www.good.is/post/not-cool-man-cities-crack-down-on-stores-blasting-air-conditioning-outside/)

하이브리드 트럭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화물운송사업자 연비평가제도 시행 (도쿄都)

- 도쿄都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트럭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함. 현재 도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을 운송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은 자가용에 비해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길어 연비 향상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큼.
 - 보조대상은 도쿄都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제2종 화물이용 운송사업자, 위의 2가지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대사업자임. 이 제도를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트럭은 총 640대임.
 - 보조금액은 일반차량과의 가격 차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로 하되, 최대 적재량 4톤 미만은 1대당 16만 4000엔(약 240만 원), 4톤 이상은 1대당 57만 1000엔(약 840만 원)을 한도금액으로 함.
- 都는 또한 2012년 3월 28일 발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새로운 화물운송 평가제도를 토대로 작성된 화물운송사업자의 연비평가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평가대상 사업자는 도쿄都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녹색번호 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화물자동차(경화물차는 제외)는 연비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평가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차종 및 차량 무게에 따라 39개 그룹으로 나눈 후 실제 주행 연비 편차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8월 중에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배부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v900.htm)

(www.kankyo.metro.tokyo.jp/vehicle/air_pollution/diesel/support/subsidy/HV-track.html)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p1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p10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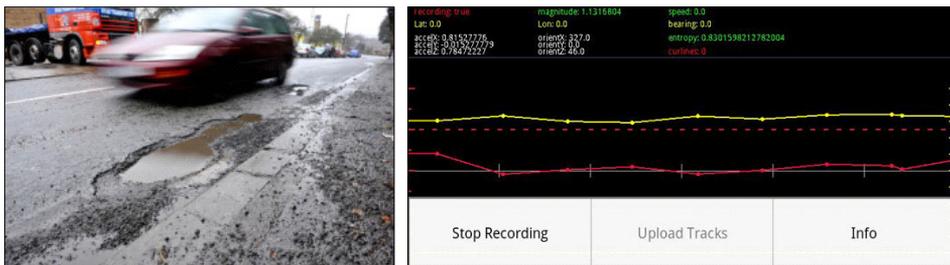
도 시 교 통

4.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도로포장 파손위치 자동인식시스템 운영 및 신(新)포장재 기술개발 지원 (영국 브리스틀市 외)

- 도로포장 파손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영국 내 도시정부에 의해 시도되고 있음. 브리스틀市는 미국에서 개발된 도로포장 파손 위치 인식 및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영국 내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노팅엄市는 지역 대학이 개발한, 도로포장 보수 후 내구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적용 및 실험을 지원함.
 - 영국 중앙정부는 브리스틀市가 그동안 도로 파손 유지보수를 잘해온 점 등을 들어 브리스틀을 이 사업의 시범 도시로 선정함. 이에 따라 브리스틀市는 ‘Street Bump’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영국 내 최초로 시범 적용하게 됨. Street Bump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동작 센서와 위치인식장치(GPS)를 활용한 기술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시범 운영 중임.
 -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차량 운전자가 도로가 파손되어 폭 파인 곳을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 파손을 인식해 市에 파손 신고

를 하게 됨. 그러면 시청에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상에 파손 위치 등이 기록되며, 市는 곧바로 도로 파손 보수에 나서게 됨. 현재 스트리트 뷰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공짜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市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한 달 동안 시민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으며, 같은 시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제작할 계획임. 市는 도로 파손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첨단기술 활용 등과 함께 일반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도로 파손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모습(왼쪽)과 파손 위치를 파악해 이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오른쪽)】

- 매년 영국 내에서 파손된 도로를 유지보수, 재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수십만 파운드에 달하는데 노팅엄市에서는 市와 지역 대학이 연계해 좀 더 내구성이 강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음. 노팅엄 대학은 파손된 뒤 복구된 도로포장의 수명을 현재 평균 4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한 뒤 개발된 포장재를 노팅엄 시내에 포장해 내구성 여부를 실험하는 데 노팅엄市와 협력하고 있음.
- 노팅엄市는 관내 도로파손 구간을 보수하는 데 새로 개발된 포장재를 사용한 뒤 노팅엄 대학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대학 측은 포장재의 건조와 주변 포장재와의 결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실험구간에 설치해 보수 과정과 이후의 도로 상태를 점검함.

- 도로포장 파손 보수에 쓰이는 포장재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는 노팅엄 대학과 노팅엄트렌트 대학이 6개월간 공동 추진하였으며, 노팅엄市는 이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의 시범 적용과 평가를 지원함. 두 대학은 이 밖에도 그간 노팅엄市에서 이뤄진 도로포장 파손에 따른 유지 보수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해 市에 제안할 계획임. 市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市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임.

(www.bbc.co.uk/news/uk-england-nottinghamshire-18026090)

(www.bbc.co.uk/news/uk-17485658)

(www.thisisbristol.co.uk/Bristol-motorists-soon-able-report-potholes/story-15645877-detail/story.html)

(www.thisisnottingham.co.uk/Researchers-look-road-potholes/story-14133000-detail/story.html)

(uk.cars.yahoo.com/news/street-bump-pothole-app-to-be-trialled-in-bristol.html)

향후 10년 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 만들기 행동지침 발표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향후 10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Chicago Forward'라는 행동지침을 발표함. Chicago Forward는 자동차, 자전거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일단 5년 안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50%로 줄일 계획임.
- 이를 위해 市는 시내 도로의 규정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운전자 교육 강화, 교통사고에 대한 더욱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 교통경찰 투입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

- 1997년부터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를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스웨덴의 경우 2020년까지 2007년 기준 교통사고 부상/사망률을 5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임. 그 결과 교통량이 증가했음에도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0만 명당 사망률이 12.3인 데 비해 스웨덴은 4.3밖에 되지 않음. 2007년 유럽 전체 평균 사망률은 11이었음.

- 워싱턴 D.C.의 경우에도 교통경찰 확충, 자전거 기반시설 확대, 지역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 스트리트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사망률이 감소함.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9명인 데 반해 2009년 33명, 2010년 25명, 2011년 32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2/05/chicagos-ambitious-plan-zero-traffic-fatalities/2117/)

도시계획 · 주택

5. 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 시행 (파리市)

-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부터 민간부동산 세입자의 지출 중 주거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함. 현재 가구당 지출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5명 중 1명이 지출액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함. 특히 젊은 부부 세대, 미혼자,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세입자의 빈곤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이들의 수입은 평균 수입보다 11% 적은 데 반해 자가주택 소유자는 평균 수입보다 7%가 높음.

- 프랑스 정부 주택부는 최근 재임대가격 상승을 관리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함. 이는 이르면 2012년 가을쯤에 시행될 예정임. 이 법령은 비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임대차 관계를 개선하고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고자 1989년 7월 6일 제정된 말랑당-메르마즈(Malandain-Mermaz) 법을 구체화한 것임.
 -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임대료 기준 지수를 통해 계약 갱신 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의 상승을 억제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임대계약인이 주택 공사를 할 경우 계약 갱신 시에 공사비용의 최대 15%까지 임대료에 추가할 수 있음.
 - 임대료의 상승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도시의 경우, 주택부장관이 말랑당-메르마즈법에 따른 법령의 적용 범위를 재임대에까지 넓힘. 이에 따르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이전 세입자의 그것과 같아야 함.
- 파리市는 이밖에도 2009년부터 세입자를 위한 특별시책을 시행해왔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주택 4만 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음.
 - 각 가정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 1일부터 파리 주택 보조금을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파리 주택 보조금의 월수입 상한선을 높이고, 파리 가족 주택의 월간 보조금을 재조정함.
 - 파리 주택 보조금은 1인 가구에는 월간 80유로(약 12만 원)까지, 아이가 없는 세대에는 90유로(약 13만 원)까지, 아이가 1명 있는 세대에는 110유로(약 16만 원)까지 지급됨. 이는 市 연간 예산에서 820만 유로(약 120억 원)를 차지함.

- 파리 가족 주택 보조금은, 아이 2명(혹은 장애아 1명)이 있는 가정에는 월 110유로(약 16만 원)를 지급함. 3년 이상 파리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市의회가 정한 월수입 상한선 이하인 가정이 이에 해당됨. 이를 위한 市 예산은 120만 유로(약 18억 원)로서 약 3300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음.
 - 한부모 가정 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한 월수입 상한선은 1600유로(약 235만 원)임. 3년 이상 파리에서 세들어 살고 있어야 하며, 부양 아동이 적어도 1명 이상이고, 市의회가 정한 월수입 상한선 이하여야 함.
- 또한 市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2년 도입한 한부모 가정 주택 보조금과 2005년 만들어진 두 아이 가정에 대한 주택 보조금 제도뿐 아니라 미혼 가정이나 아이가 없는 세대까지 그 혜택을 늘림.
- 파리에 적어도 3년 이상 거주하고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며 아이가 없는 가정의 경우 수입이 1100유로(약 160만 원) 이하, 아이가 1명인 가정의 경우 수입이 1600유로 이하(약 240만 원)인 가구가 이에 해당됨. 이 보조금은 실업자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받을 수 있지만, 은퇴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음.

(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encadrement-des-loyers-paris-se-rejouit-de-la-mesure-d-urgence-annoncee/rub_1_actu_116006_port_24329)

(www.paris.fr/accueil/logement/locataire-a-paris-aux-revenus-modestes-l-a-ville-vous-aide/rub_9649_actu_74065_port_23745)